

“亞문화전당 국가 소속 시한 5년으로”

여야, ‘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견 접근

오늘 최종 협상 ... 여당이 정부 설득 나서기로

여야가 2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2월 25일 국회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야는 25일 최종 협상을 통해 수정된 개정안을 마련, 곧바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25일 밤 아특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특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재부 등 정부와의 최종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아특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교문위 여야 간 사까지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견을 좁힌 결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국가 소속 기관의 기한을 5년으로 하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약 600억원)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아특법 개정안 조항을 ‘1%’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의견 절충을 이뤘다”고 밝혔다.

우선 운영 경비 지원과 관련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화돼 있으나 그동안 정부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강제 규정 주장에서 한발 양보, ‘지원한다’라는 수준에서 여당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국가 소속 기간의 기한 설정과 관련, 아특법 개정안에는 국가 소속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3년 또는 5년으로 시한을 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기존 개정안 내용에서 한발 양보, 5년의 시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5년 이후 아시아문화 전당 운영 전부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자금 지원과 관련해 여당은 ‘1%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안을 기본으로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박해자·강기정 의원에 물은 결과, 수용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며 “여당이 이 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만 70~80%는 합의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얼마 전에 아내의 배가 살살 아프다고 했다. 약을 먹어도 안 듣는다고, 밤에는 진통제를 한 알 달라고 했다. 다음 날 새벽에 바닷가 산책을 다녀온 아내의 앞산 산마루 위로 꼬리 달린 빨간 불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것이 누군가의 혼불인지, 아니면 우주비행물체(UFO)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엔 배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약을 먹고 자고 나더니 농담을 했다. “간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문득 생각나 두 눈두덩을 눌러보니 파란 불이 보이길래 안심했어요. 저번 새벽에 본 것이 내 혼불은 아니었구나 하고.”

인간의 몸은 90퍼센트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신비한 불을 지니고 있는 우주적인 존재이다. 동양에서는 우주의 원소를 물(水), 불(火), 흙(土), 쇠(金), 나무(木) 등 오행(五行)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물, 불, 흙, 공기(四行)라고 말한다. 프랑스 비평가 바슐라르가 쓴 ‘불의 정신분석’은 예술작

이 경쟁적으로 눈독이나 발독에 불을 질렀다. 뿔뿔을 들고 다니면서 마른 풀을 불태우는 맛, 들불이 번지는 것을 보는 재미는 폭죽을 터뜨리는 환희와 비슷했다.

옛날에는 해충의 알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장려했지만, 지금은 산불로 이어진다고 이를 철저히 금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무성한 마른 풀밭 앞에서 방화의 충동을 느낀다. 싸움 구경, 물난리 구경, 불난리 구경 가운데 불구경이 제일 인간을 흥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광기를 품고 있는 동물임을 말해 준다.

김동인의 소설에 ‘광화사’(狂華師)가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불을 질러 놓고 타오르는 불을 보며 예술적인 흥취와 쾌감으로 인해 전율을 느낀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의 세파랑게 젊은 김정일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로켓을 연달아 발사하는 것도 일종의

순화된 불을 위하여

꽃들을 물과 불과 흙과 공기 등의 네 가지 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논한 명편이다.

술은 불을 품고 있는 물이다. 그리하여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것이 품고 있는 불로 인해 광기가 발동한다. 광기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한다.

비행기 안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리게 한 여자 부사장은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따지고 보면 그녀의 행위는 세상애다가 불 지르기가

의 방화 본능일 것이다.

불장난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성적인 불장난이다. 젊은이들은 그 불장난을 위하여 콘돔을 사는데,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라 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팀이 4강까지 갔을 때, 붉은 악마들이 열광을 했고, 이 땅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덩달아 함께 미친 듯 들쭉거렸다. 그 시기에도 콘돔이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 산부인과를 들락거린 여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 죄로 인해 사지가 묶이고 독수리에게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다. 아폴론은 밝은 불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어둠(포도주)의 신이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바쿠스)는 예술의 신이기도 하다. 예술은 향기를 순화된 흥취이지만,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정치나 경제나 스포츠는 악마적인 광기의 춤이다. 예술 혹은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악마적인 불을 순화시키는 데에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소설가)

고충민원처리 평가 전남도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전남도가 경기도, 세종자치시와 함께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를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5개 기초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 결과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평균(78.7점)보다 6.5점 높은 85.2점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전년도 부진기관으로 평가받은 57점보다 무려 28.2점이 상승한 것으로 미흡, 보통을 뛰어넘어 단번에 우수기관으로 도약했다.

장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는 도민을 위한 도정이 돼야 한다는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감사부서가 민원인 눈높이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편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처리를 해 도민을 위한 행정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 직원에 대해 오는 27일 개최하는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하고, 부진기관 등에 대해선 자문을 통해 고충민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국제행사 성공 개최 업무협약

윤장현 광주시장과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낙연 전남도지사(왼쪽 네번째부터)는 2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4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먹고 놀자판’ 공무원 정책연수 사라질까

전남도, 전국 첫 인센티브·패널티 도입

올해부터 정책연수에 나섰다가 결과물이 신통치 못한 전남도 공직자들은 지원 예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좋은 성과를 남긴 연수자는 상을 받는다.

전남도는 24일 “공직자들의 전문지식 함양,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정책연수와 관련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도가 정책연수에 배정한 예산은 모두 6억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억

7000만원이 해외, 5000만원이 국내에 각각 배정됐다.

정책연수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는 전남도는 올해부터 연수 후 보고회를 개최해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 낮은 평가를 받은 팀이나 개인은 지원금액의 10분의1을 회수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책연수가 ‘먹고 놀자판’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정책연수 이외에 공무원외역

행도 올해부터 목적 부합 여부, 여비 적용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6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외역행심사위원회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여비 산출을 꼼꼼히 따지는 등 과거보다는 좀 더 세심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공무원외역 예산으로는 모두 6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공식적인 업무 차원의 ‘여행 및 연수’로 들어가는 형세가 12억7000만원인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 일정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맞게 계획하고, 성과를 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행과 연수를 장려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GO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china.co.kr
 자갈천하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 구오말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보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도스스크라미 '眞 김사연' 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올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